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심미영¹, 이돌녜^{*}

¹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tress Coping Behavior and Mediation Effect of Social Competence within the Influence Relation where the Effect of Stress of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ir School Adjustment

Mi Young Sim¹, Dool Nyeo Lee^{*}

¹Department of Social Welfar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부적영향,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에도 부적영향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를 확인한 결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적응에 정적영향을, 사회적 능력도 학교적응에 정적영향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이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 교육 방향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밑바탕이 되어 학교적응력 향상을 위한 실천적인 함의를 가진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tress cop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determine the influential relationships between their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stress had overall negative effect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also on their stress cop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e. For the indirect effects, both their stress cop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e had positive indirect effects on their school adjustment. Stress did not have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ress coping behavior and social competence have full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ir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directions of school education and various program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stress coping and social adjustment competenc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offering practical implications to enhance their school adjustment.

Keywords :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chool Adjustment, Social Competence, Stress Coping Behavio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세계화·지구촌·국제화로 인하여 국가 간

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동, 유학, 결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나

본 논문은 한국국제대학교 2015년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Dool Nyeo Lee(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Tel : +82-55-751-8429 email : doolnyeo@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 2016

Revised (1st February 25, 2016, 2nd March 2, 2016)

Accepted March 3, 2016

Published March 31, 2016

이민자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는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수는 2007년 44,258명이었는데, 2015년 1월 기준으로 207,693명으로 지난 8년 사이에 4.7배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만 6세 이하 자녀가 117,877(56.8%), 만 7세~12세 56,108명 (27%), 만 13~15세 자녀가 18,827명(9%), 만 16~18세가 14,881명 (7.2%)로 나타났다[1]. 또한 다문화학생 수는 8만 2536명(1.4%)로 지난해에 비해 0.3% 증가하였고, 초등학생 중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2.2%로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1], 내국인 가정의 출산율 감소를 볼 때 향후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중은 점차 더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문제는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오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뿐 아니라 자녀양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주위 사람들의 인식과 차별을 경험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2-3], 낮은 사회적 유능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4].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느끼는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족관계에서 자녀에게 전이 되어 아동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5].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경우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이 늦고, 자아정체감의 혼란과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와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학교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학교에서의 경험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위축과 소극적인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폭력적이거나 과잉행동 등으로 이어지게 되어, 정서적인 문제, 대인관계문제, 학습결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6-7]. 특히 어머니의 출신 배경이 한국과 다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일수록 자녀들의 학교적응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언어발달과 가족구성원의 특성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나타났다[8-9].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0]. 특히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이주민에 대해 배타적이며,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이해하는데 한국사회의 준비가 미흡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은 신체적·정서적인 건강과 직결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일반가정의 아동이든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상관없이 우리가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아동의 일상 환경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아동의 대처 능력은 미숙한데 있다. 스트레스는 그 자체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개인의 건강과 안녕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스트레스 대처에 따라 스트레스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1].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낮게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적응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가정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주위에서 오는 문화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원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밝혀내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2 연구 문제와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규명하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에 교육과 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원만한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 학교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가? 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이 독립변인인 스트레스와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서 어떤 과정과 기제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하고자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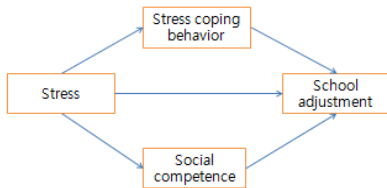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이론적 배경

2.1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

스트레스란 개인의 신체·심리적 안녕 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자극이며, 개인의 정서·행동, 생리적 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개인의 특유한 반응을 야기하는 요인을 말한다[13].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적 건강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대처행동에 의해 완충되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스트레스 경험 유무보다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에 더 설명력이 있음이 밝혀졌다[11]. 아동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에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아동이 느끼는 정서 및 심리적 상태가 반영될 수 있으며, 사회·정서적 적응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라고 보는 주장이 여러 연구에서 지지되고 있다[14-15].

2.2 스트레스와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사회적 능력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능력으로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 및 상황에 적절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술 및 적응능력을 말한다[16]. 다문화가정 아동은 어머니의 애착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애착은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다문화가정 아동의 다양한 스트레스는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데, 어머니와의 대화부족으로 인한 자녀교육,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 또래관계 등을 들 수 있다[18]. 특히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로 인한 충돌로 인해

정체성 형성의 혼란과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자신감을 잃게 되어 학교 생활에서도 주체적이지 못하게 된다. 이는 원활하지 못한 언어소통으로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습부진으로 이어지고 소극적이거나 과잉행동장애 등의 정서장애를 겪게 된다[19-20].

특히 의사소통기술은 사회적 능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부족으로 가정안에서의 소통 뿐 아니라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21] 결과로 이어진다. 의사소통기술은 민족의 관습을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타민족과의 상호교류 확대 및 적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5]. 다문화가정 아동의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사회성이 높았으며,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학업수행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

2.3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

학교적응은 아동과 학교생활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하며 학교 규칙준수 및 교사와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며,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여 자신의 요구와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변화시키는 상태를 말한다[23].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가정 내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외국출신 어머니의 낮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아동의 늦은 언어 발달, 프로그램 미흡,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압박감과 정체성 혼란 등의 어려움과 문화적응의 어려움은 사회적 부적응과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연결된다[24-25]. 다문화가정 아동은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모의 문화적 배경이 다르므로 인하여 지식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 등 학교생활에 대한 준비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다[9].

다문화가정 아동은 외모에 대한 놀림을 많이 받는다[8] 연구결과가 있으며, 집단 따돌림은 외모를 이유로 또래 집단에서 경험한 경우가 17.6%로 나타났는데[8], 이는 피부색깔, 말투, 눈동자 등 신체적인 차이로 인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외모에 대한 고민은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돌림의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아동들은 자신의 외모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느낄수록 학교부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26]. 학교에서 놀림과 왕따를 경험하고 위축되거나 소

극적으로 행동하거나 반대로 폭력적이고 과잉행동을 보이고, 결국 학교에서 정서적인 문제, 대인관계문제, 학습결손과 차별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거나 방황하는 문제 또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7-8].

2.4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회적 능력, 학교적응 간의 관계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학교생활 내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8], 이는 아동의 스트레스를 높여 아동의 학교적응은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25][27].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은 적절한 보살핌과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교육적 소외와 지체, 사회적 부적응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9] [28]. 그 결과로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우며, 학업 성취가 낮고, 학업중단을 하는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동과 다르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차별, 억울함 등이 위축감으로 내재화 문제[29]와 학교부적응,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보이고 있다[30].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는 대인관계 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부족해지고, 소외감을 잘 느끼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등 심리적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하여 약물오남용, 비행, 학교폭력, 가출 등의 학교부적응행동을 증가시키고[31-32], 이후에 성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33-34].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능력의 사회적 측면과 학업과의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으로 거부되고 공격적인 아동은 학업적인 실패의 위험이 나타났다[35]. 특히 아동상호간의 인정과 수용도가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36] 통해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적 능력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 능동적 대처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학교수업,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며[37], 적극적 대처행동이 높을수록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 아동이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대처하는 적극적인 대처는 학교생활적응에 밀접한 관계가 나타나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38].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자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통계는 Table. 1과 같다. 남자 139명, 여자 115명으로 나타났으며, 총 254명 중 4학년 80명, 5학년 95명, 6학년 79명이다. 어머니의 나라를 살펴보면 중국 67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필리핀,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content	n	%
gender	Male	139	54.7
	female	115	45.3
grade	grade(4)	80	31.5
	grade(5)	95	37.4
	grade(6)	79	31.1
Mother country	China	67	26.4
	Japan	60	23.6
	VietNam	18	7.1
	Mongolia	2	0.8
	Philippines etc	66	26.0
local	Geoje	22	8.7
	Geochang	23	9.1
	Gimhae	36	14.2
	Namhae	23	9.1
	Miryang	24	9.4
	Yongsan	33	13.0
	Jinju	28	11.0
	Changwon	31	12.2
	Hapcheon	34	13.4

3.2 측정도구

3.2.1 스트레스 척도

아동의 스트레스 척도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미현과 유안진(1995)이 개발한 ‘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39]. 척도의 구성은 부모영역, 가정환경 영역, 친구 영역, 학업 영역, 교사 및 학교 영역, 주변 환경 영역 등 6개 하위영역으로 되어있으며,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영역과 가정환경영역으로 구성하여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영역별 신뢰도는 .78과 .84였으면, 본 연구에서는 두 영역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3.2.2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대처방식 척도[40]와 Sandler(1990)의 아동 대처전략

체크리스트를[41] 신은영(1998)이 번안하여[42] 사용한 것으로 문제중심 대처 4문항, 회피적 대처 5문항, 기분 전환 4문항, 지지추구 5문항 등 네 범주 총 18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은영(199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전체 .81이었으며, 본 논문의 신뢰도는 .80로 나타났다.

3.2.3 사회적 능력 척도

사회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Achenbach(1991)가 제작한[43] Youth Self-Report를 오경자 외 (2007)[44]이 표준화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Korea-Youth Self-Report)를 활용하였다. K-YSR 척도는 만 11세~18세까지를 대상으로 개발한 사회능력 척도로 다문화가정 아동 및 일반 아동의 사회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선행연구[10][44]에서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능력 척도에는 사회성 척도와 학업수행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사회성 척도는 친구의 수와 어울리는 정도, 형제자매, 또래, 부모와의 관계의 질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척도를 평정한다. 학업수행 척도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의 5개 척도로 점수를 합하여 평균을 구한 것과, 특수학급 여부와 휴학여부를 묻는 척도로 이루어졌다. 총 사회능력점수는 사회성 척도와 학업수행 척도의 합으로 전체 사회능력 정도를 지수화 한 것이다. 오경자 외(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6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0로 나타났다.

3.2.4 학교적응 척도

학교적응은 학교에 대한 지각, 학교·학급내 활동성, 학습관련 태도·행동을 측정하였다. 학교적응 척도는 Ladd, Kochenerfer, & Coleman(1996)이 제작한 학교적응 척도를[45] 황경미(1998)가 번안하여[46] 사용한 척도로 학교에 대한 지각 4문항으로 신뢰도 .75, 학교·학급내 활동성 4문항으로 신뢰도 .66, 학습관련 태도·행동 4문항으로 신뢰도 .64로 나타났으며 총 12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학교적응 신뢰도는 .88이었다.

3.3 연구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은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에 의해 형성된 가족 내 자녀로 정의하며, 경상남도 18개 시·군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중인 아동이 대상이다. 조사를 위해 경상남도 교

육청을 통해 각 학교 다문화 담당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 진행절차,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자료사용 및 보호 등에 대해 협조문을 통해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 배포와 수거는 각 학교 다문화 담당 교사에 의해 우편으로 전달받는 방식으로, 2013년 12월~2014년 2월 약 3개월간 조사하였으며,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총 271부 설문지가 수집되었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54부가 분석 되었다.

3.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는데,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Baron과 Kenny(1986)[47]의 접근법이나 Sobel test(Sobel, 1982)[48]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그 대안적인 방법으로 Bootstrapping을 활용한 접근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49]. 이 방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사이에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이 존재할 경우 매개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형에서 동시에 추정할 수 있는 Bootstrapping로 관련 변수를 입력하면 한 번에 검증 결과를 보여주어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강점을 지닌다[50]. 이 분석 방법은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PROCESS macro라는 새로운 분석방법이 전파되고 있는데,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직접효과와 매개효과, 조절효과를 별도의 추가 과정 없이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49].

4. 연구결과

4.1 연구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eacher와 Hayes(2013) [51]가 제시한 SPSS Macro를 이용하여 매개효과 연구모형을 분석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은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Bootstrapping은 일종의 통계적 모의실험절차로 대규모의 가상적 무선 표본을 만들어서 각각에 대해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매개효과와 통계적 무선오차에 의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는 것이다 [52, 재인용].

Table 2. The average of the measured variables,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urtosis

	Min	Max	M	S.D	Skewness	Kurtosis
stress	1.00	4.13	1.727	.611	.806	.419
stress coping behavior	1.80	3.57	2.585	.280	.194	.753
social competence	6.35	16.80	11.940	1.501	-.890	1.432
school adjustment	1.17	4.00	3.136	.500	-.452	.385

Table 3. Correlation Between Latent Variables

	gender	grade	stress	stress coping behavior	social competence	school adjustment
gender	1					
grade	.046	1				
stress	-.104	.002	1			
stress coping behavior	.213**	.016	-.376**	1		
social competence	.015	-.013	-.283**	.111	1	
school adjustment	.186**	-.007	-.362**	.341**	.373**	1

* $p < .05$, ** $p < .01$, *** $p < .001$

Bootstrapping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고,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변인들의 왜도(skewness)값의 절대치가 .806 이하이며, 첨도(kurtosis)값의 절대치가 1.432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는 Kline(2010)[53]제시한 정규분포의 조건인 왜도값(± 3)과 첨도값(± 10)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정규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Table. 2].

본 연구에 변인들의 상관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 시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과 학년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성별은 더미코딩을 적용 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인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원만한 학교적응과 관련되어 부적상관($r = -.362, p < .01$)을 보였으며, 스트레스와 사회적 능력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는 부적상관($r = -.283, p < .01$)을 보였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관련되는 부적상관($r = -.376, p < .01$)을 보였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 뿐 아니라 사회적 능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까지 부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적응에 정적인 상관($r = .341, p < .01$)을 보였으며, 사회적 능력 또한 학교적응

에도 정적 상관($r = .373, p < .01$)을 보였다. 즉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2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중매개모형 분석을 4단계의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매개변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예측변인 및 준거변인과의 상관이 유사하거나 예측변인보다 준거변인이 더 큰 상관을 보이는 변인을 선택하는 것이 매개효과 검증에 대한 통계적 검증력(statistical power)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본 연구모형에 적용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은 예측변인인 스트레스보다 준거변인인 학교적응과 더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매개변인으로 적절하게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전체효과(c)는 부적 영향($\beta = -.305, p < .001$)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으면 학교적응이 낮아진다는

Table 4. Effectiveness Parameters

step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VIF
1	school adjustment	invariable	3.34					
		gender	.151	.061	.171	2.474	.044 *	1.014
		grade	-.001	.038	-.017	-.014	.989	1.005
		Stress	-.284	.050	-.305	-5.714	.000 ***	1.010
		$R^2=.153$						
2	stress coping behavior	invariable	2.70					
		gender	.102	.037	.197	2.746	.006 **	1.018
		grade	.102	.023	-.002	-.652	.514	1.007
		Stress	-.157	.031	-.336	-5.009	.000 ***	1.012
		$R^2=.064$						
3	social competence	invariable	13.22					
		gender	.261	.206	.006	.126	.899	1.013
		grade	-.095	.129	-.029	-.736	.462	1.005
		Stress	-.734	.173	-.274	-4.230	.000 ***	1.013
		$R^2=.082$						
4	school adjustment	invariable	2.17					
		gender	.100	.062	.146	1.603	.110	1.023
		grade	-.006	.038	-.023	-.180	.857	1.057
		Stress	-.108	.057	-.219	-1.888	.060	1.131
		stress coping behavior	.407	.118	.518	4.554	.000 ***	1.056
		social competence	.097	.021	.292	4.554	.000 ***	1.100
		$R^2=.265$						

것을 알 수 있었다. 2단계로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부적 영향($\beta=-.33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높으면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3단계로 스트레스가 매개변인인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부적 영향($\beta=-.274, p<.001$)을 미치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단계로 매개변인인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정적영향($\beta=.518,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인인 사회적 능력이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정적영향($\beta=.29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독립변인인 스트레스는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독립변인인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이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로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SPSS Macro 방법을 사용하여 Bootstrapping을 적용

하여 확인하여 검증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모든 경로계수가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3가지로 유의수준(p), 신뢰구간, t 값을 가지고 실시하며 SPSS Macro에 의하여 제시된 신뢰구간을 적용하였다.

Table 5. Indirectness Effect

Indirect effects	Effectiveness factor	Boot. S.E	95%	
			Boot. LLCI	Boot. ULCI
Stress->Stress coping behavior->School adjustment	-.0640	.245	-.1237	-.0261
Stress->Social competence->School adjustment	-.0714	.0231	-.1268	-.0348
Indirectness Effect	-1.1354	.0317	-.2059	-.0820

본 연구의 최종모형은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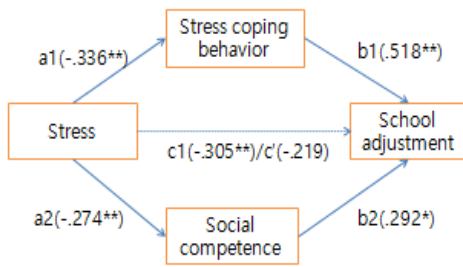


Fig. 2. Research model effect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알아보고자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이 독립변인인 스트레스와 종속변인인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어떤 과정과 기제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남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 총 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 학교적응 간의 관계는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원만한 학교적응과 관련되어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스트레스와 사회적 능력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관련되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 적응 뿐 아니라 사회적 능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까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적응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능력 또한 학교적응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통해 높일 수 있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와[25][27]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스트레스는 사회적 능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스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끼쳐 가족관계 및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8][32]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요인에 따라 대처행동이

달라져야 하나 부정적인 대처행동은 문제행동을 가져온다는 연구[54]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의 매개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4단계 회귀분석과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로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학교적응을 높인다는 연구[36][39]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높인다는 연구[22][36-37]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독립변인인 스트레스가 종속변인인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이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 볼 때, 다문화가족 정책 중 다문화가정의 생애주기별 사회통합지원체계에서 초기사회적응지원 중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이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정된 한국문화만을 이해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개선 등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가정이나 다양한 환경에서 문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능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아동들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위해 의사소통기술, 대인관계기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완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학교적응에서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사회적 능력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과 학년만 살펴보았는데 개인의 성격,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계층, 생활 사건의 종류 등의 여러 변인들에 대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다양한 변인과 변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특성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축적했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상담, 개입 등의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참고 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References

- [1] <http://www.liveinkorea.kr/homepage/kr/multidata/statisticFamily.asp?language=KR&mc=M0031>, 2015
- [2] Costigan, C. L., Daphne P. & Dokis, D. P.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acculturation differences and adjustment within immigrant Chinese families. *Child Development*, Vol. 77 No .5, pp. 1252-1267, 2006.
- [3] Davidson, T. M., & Cardemil, E. V,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al involvement in Latino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 29 No. 1, pp. 99-121, 2009.
DOI: <http://dx.doi.org/10.1177/0272431608324480>
- [4] A. S. Sun, M. N.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social skill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Psychological Service Association*, Vol. 4, No. 1, pp. 79-90, 2012.
- [5] C. R. Nho, J. J. Hong, "Adaptation of Mongolian migrant worker's children in Seoul, Gyeonggi Area = Adaptatio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to Korean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No. 22, 2006.
- [6] S. B. Oh, "A Case Study on the Growing of Kosian Children and Its Soci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32, No 3, pp. 61-83, 2005
- [7] H. J. An, "A Study on School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 Rural City",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7 No. 4, pp. 383-391, 2008.
- [8] S. B. Oh, "The implication of the 'Kosian' case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ology of education*, Vol. 16 No. 4, pp. 137-157, 2006.
- [9] Y. K. Park, K. H. Sung, Y. D. Cho, "Articles :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attitude towards cultural diversity and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Vol. 40, No. 3, 1-28, 2008.
- [10] S. H. Park,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Adjustment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29, pp. 125-154, 2009.
- [11] Billing, A. G., & Moos, R. H.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6, pp.877-891, 1984.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46.4.877>
- [12] Y. J. Lee, "A Study on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Psycho social Adjustment of a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4 No.2, pp. 103-119, 2009.
- [13] S. J. Ha, "A Comparative Study on Life Stress Level and Coping Behaviors of Children between Double vs. Single Income Famil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0.
- [14] McCubbin. H. L,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FILE). Unpublished manuscript", St. Paul. MN; University of Minnesota, 1981
- [15] J. A. Han,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divorced famili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8
- [16] J. J. Park, "The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s Functions on the Social Competence of Multicultural Childre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ulticultural Family Mothers' Parental Efficacy",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5 No. 6, 2015
- [17] H. Y. Gao, H. M. Hyang, Y. I. Kang,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Ethnic Minority Children",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Vol. 18 No. 2, 2010.
- [18] G. S. Kim, "(A)Study on the realities of child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6.
- [19] Y. M. Choi, "The Relations between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with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2.
- [20] G. S. Je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Teenagers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Normal Family in Gyeonggi Prefecture -Based on School Life and Family Life" *Korea Youth Counselling*, Vol. 16, No. 1, pp. 167-185, 2008.
- [21] H. S. Jeoung, J. H. Lee, J. L. Yoo, *Multicultural youthlogy*. Yanceowon, 2007.
- [22] S. H. Park, W. T. Cho, J. H. Lee, "A Study of Social Adjustment and Related Variables i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27, pp. 41-57, 2008.
- [23] M. Y. Jung, H. J. Moon, "Relevant Variables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Vol. 28, No. 5, pp. 37-54, 2007.
- [24] S .D. Hwang, E. H. Park, "The Effect of Parental

- Attitude and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Social science research*, Vol. 26, No. 4, pp. 123-145, 2010.
- [25] H. J. Shin, "A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the Ego-identity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7.
- [26] J. L. Jeon, H. S. Sin, "The Effects of the Life Environm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on their School Maladjustment", Vol. 14, No. 3, pp. 251-283, 2008.
- [27] J. J. Ge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Silla University*, 2007.
- [28] D. H. Seol, H. S. Yoon,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countries of origin = Socioeconomic adaptation and welfare policy for immigrant women on marriag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 24 No. 2, pp. 109-133, 2008.
- [29] M. H. Hwang, H. Yue Gao, J. Y. Kim, "Experience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th Ethnic Minorities", *Childrenm,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1 No. 1, pp.147-167, 2010.
- [30] J. H. Shin, "A comparative study on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s between the immigrant women's children and general student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8.
- [31] M. J. Chung, J. K. Eo,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Solution-Focused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Maladaptive 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Vol. 12, No. 1, pp. 107-139, 2004.
- [32] Ekstrom, R. B., Goetz, M. E., Pollack, D. A. & Rock, D. A. "Who drops out of high school and why? Findings from a national study." *Teachers College Record*, Vol. 87 No. 3, pp. 356-376, 1986
- [33] H. J. Baek, E. B. Kil, "The Acculturation of the Youths Refugees from North Korea in South Korea: Focused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Adaption",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 5, No. 4, pp. 212-241, 2008.
- [34] H. J. Hwang, "A Study on the Stress and Its Relative Effects of Variabl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19 No. 1, pp. 193-216, 2006.
- [35] O. H. Lee, "The Effects of Empathic and Social Abil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School Lif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Major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nkuk University*, 2010.
- [36] H. S. Lee, "The Impact of Peer Relationship on Child School Life Adjustment",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1.
- [37] C. Y. Song, "A Study on the Relations among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s Stresses, Coping methods, and the Adaptations of their School Lives", *Jeouju University*, 2003.
- [38] B. A. Yu, K. H. Ok,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School Adjustment,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8 No. 4, 2013.
DOI: <http://dx.doi.org/10.13049/kfwa.2013.18.4.511>
- [39] M. H. Han, A. J. Yoo,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Scale for Children in Korea",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33, No. 4, pp. 49-64, 1995.
- [40] Lazarus, R. S., &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linger Publishing Co. 1984.
- [41] Sandler, I. N, Tein, Jenn-Yun, & West, S. G. "Coping, Stress, and the psychological symptoms of children of divorce; A cross-sectional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Vol 65, pp.1744-1763, 1994.
DOI: <http://dx.doi.org/10.2307/1131291>
- [42] E. Y. Shin, "An experimental approach on the stress coping model to the case of Korean children", *Pusan National University*, 1998.
- [43] Achenbach. T. M,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1991.
- [44] K. J. Oh, E. H. Ha, H. R. Lee, K. E. Hong, "Korean Youth self-Report(K-YSR)", *Huno Consulting*, 2007.
- [45]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7 No. 3, 1996.
DOI: <http://dx.doi.org/10.2307/1131882>
- [46] K. M.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Friendship and School Adjust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998.
- [47]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51.6.1173>
- [48] Sobel, M. E,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1982.
- [49] H. E. Lee, "Review of Methods for Testing Mediating Effects in Recent HRD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Vol. 16, No. 2, pp. 225-249, 2014.
- [50] J. K. Kam, M. H. Park, "The Functional Mechanism of Motivations as Predictor of Continuous Volunteering : Focused on Mediation by Empowerment and Moderation by Management Situations", *Journal of Critical Social Policy*, Vol. 45, pp. 7-50. 2014.
- [51] Preacher. K. J. & Hayes, A. F.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with a multi 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 Unpublished white paper, 2013.
- [52] H. W. Lee, D. M. Yeum, "The Doble Mediation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xpressing Emotion, Emotional Expression between Mood Awarenes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Vol. 31, No. 2, pp. 85-106, 2015.
- [53] Kline, R. B, "Principle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Y: Guilford Press", 2010.

- [54] A. Y. Kim, et al., "Differential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Stress, Self-regulatory Efficacy, and Motivation in the High vs. Low Academic Ability Group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Motivation Types",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 26, No. 2, pp. 543-562, 2012.
-

심 미 영(Mi-Young Sim)

[정회원]



- 1999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가정관리학과(가정학 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가족 및 청소년복지, 사회복지교육 분야

이 들 녀(Dool-Nyeo Lee)

[정회원]



- 2014년 2월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서비스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1년 4월 ~ 2015년 2월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남지부 대표
- 2015년 3월 ~ 현재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다문화가족복지, 가족복지